창간 50 불교신문

‘정화와 개혁을 너머 정법으로’

– 창간 50주년 특집 60면 발행

불교신문이 현대사에 끼친 영향 …… 3면

각계 인사 축하 메시지 …… 4~5면

‘통합종단에서 개혁종단까지’
– 불교신문의 활약 …… 7면

성륜스님 ‘창간50주년 축화’ …… 9면

특별기획 Ⅰ
‘정화와 개혁을 너머 정법으로’ 시대적 고찰

정화에서 개혁까지…주역은 …… A2~3면

종단개혁에서 현재…발전됐나 …… A4~5면

좌담/ 지나간 50년…새로운 50년 …… A8~9면

불교신문 50년 50대 뉴스 …… A13~17면

특별기획 Ⅱ
‘지나간 50년, 새로운 50년’

불교신문을 이끌어온 사람들 …… B2~3면

되짚어보는 불교출판 50년사 …… B4~5면

좌담/불교신문이 나아갈 길 …… B6~7면

불교신문은 나의 도반 …… B10~11면

“시대를 바르게 선도할 언론 역할 기대”

창간50주년 기념사 조계종 총무원장·불교신문 발행인 자승스님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면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는 불교신문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서산 대사의 가르침이 담긴 이 한시(漢詩)처럼 꼿꼿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교신문 50년사(史)는 이 여정의 기록이며, 온고지신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문이 창간된 1960년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청담 대종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식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도외시 되고, 서구의 정신문화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충돌하던 때였습니다.

부처님가르침 외호에 앞장

이때 불교신문은 중앙종무행정을 깊은 산속 암자에까지 전하고, 사찰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1600년 전통의 한국불교 사상과 문화를 사회에 알리고 불법을 외호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불교신문의 지난 50년 세월 속에는 종단과 사회의 고난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종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불교신문 또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의 격동과 혼란으로 한때 신문 발행을 중단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론직필을 통해 교계를 일깨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겠다는 정신은 면면히 흘러왔습니다. 청담 대종사께서 창간호에 남긴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전해온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로 인해 곤혹을 치러야 했던 주필 법정스님,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일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숭산스님, 아름다운 문학으로 우리의 말과 사상의 고아함을 세계에 알린 고은 전 주필 등을 통해 그러한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재운, 목정배 교수님을 비롯한 불교신문의 인재들은 불교계를 발전시키고 시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근저에는 민족과 불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확고한 신념과 사부대중의 변함없는 애정이 고여 있습니다.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언론의 환경도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TV에 이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신문의 책임감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부대중에게 단편적이고 사실에서 벗어난 정보를 지양하고, 불교와 사회를 바르게 보는 지혜(正見)를 전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붕괴되고 무한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지구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미래의 인류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각 매체마다 넘쳐나지만 그 대안은 좀처럼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불교가 지켜온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유용한 미래가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르게 선도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불교신문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날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생명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가치관을 모든 이에게 전달할 책임이 바로 불교신문에 있습니다.

생명존중 가치 올바로 전하길

‘한 장의 불교신문은 한 사람의 포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문서포교는 아직 불교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문서포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불교신문입니다. 사부대중께서 불교신문을 통해 포교에 가일층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교신문이 창간된지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50년의 세월을 바라보며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변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교신문에 대한 전 종도들의 애정과 관심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익명의 독지가 2억5000만원 ‘아름다운 동행’

논산훈련소 법당건립기금 유네스코 후원금으로 전달

총무원장 자승스님(오른쪽)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기탁한 2억5000만원의 성금을 지난 5일 종단의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 혜경스님(왼쪽)을 통해 종단 목적불사와 유네스코 기금으로 전달했다.

익명의 독지가가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 기금과 유네스코 후원금을 기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익명의 독지가가 기탁한 2억5000만원의 성금을 지난 5일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종특별교구와 유네스코에 전달했다. 2억원은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 기금으로, 5000만원은 유네스코의 저개발국가 어린이 교육사업 비용으로 사용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군법당을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상(相)을 내지 않고 기부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임1주년 축하연 10분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마련한 취임 1주년 ‘축하의 자리’에 참석해 종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오전8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열린 축하의 자리는 축하떡 절단, 꽃다발 전달, 총무원장 스님 말씀, 기념촬영으로 10분간 조촐하게 진행됐다. “번거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종무원들을 고생만 시키고, 고마움 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면서 “각 부서에서 애쓰는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기본선원장 지환스님을 비롯해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에 근무하는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창간50주년 축하

원로의원 월서스님이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하며 휘호(揮毫)를 선물했다. ‘만법귀일 (萬法歸一)’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많은 고승들이 화두로 삼았다. 그 하나가 무엇이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一歸何處). 스님이 묻는다.

총무원 총무국장 현담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일 총무원 총무국장에 현담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종민스님의 총무국장 사퇴에 따른 후속 인사이다. 제33대 집행부의 두 번째 총무국장을 맡은 현담스님은 1986년 대승사에서 법달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범어사에서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은사는 법달스님, 교구 본사는 제11교구 불국사이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조계사 포교국장, 포항 보경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1 신춘문예 공모 11월15일~12월15일 www.ibulgyo.com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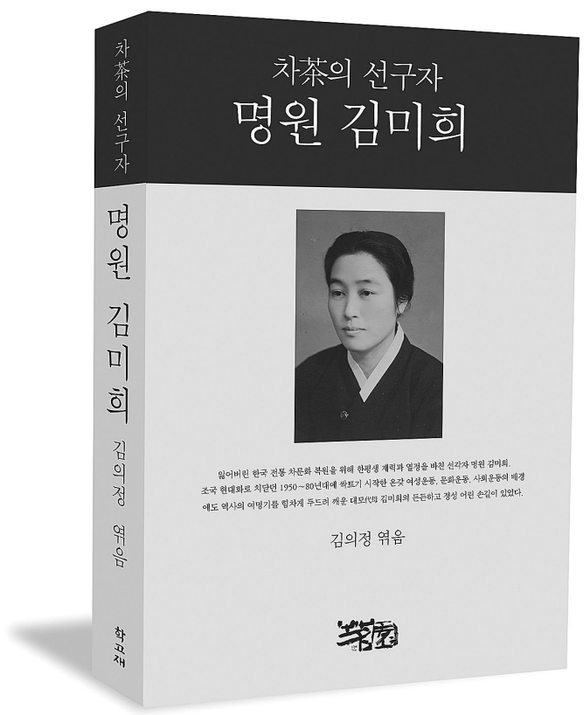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김의정 합장

• 부 설 기 관 _ 사)날마다 좋은날, 불교인재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주)연우와 함께, 연우치과
• 부설위원회 _ 문화재환수위원회, 종교화합위원회, 불교정책기획단,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연우야, 세계불교도우의회 지역본부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화 02-733-7277 팩스 02-733-7278 홈페이지 : 중앙신도회 www.LBA.or.kr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차茶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財團法人 茗園文化財團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www.myungwon.org

(재)명원문화재단
▮ 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272 Tel : 02-730-7191~2 Fax : 736-6332
▮ 교학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07 Tel : 02-742-7190~1 Fax : 745-9095